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김 혜 숙

아주대학교

본 조사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대북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사회 범주인 지역이나 성집단에 대한 태도와도 일관되게 관련되는 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 신념 및 태도가 남북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일련의 접촉 이전에 비해 달라 졌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남녀 대학생 55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특히 보편주의 가치가 대북 태도를 정적으로 예언해 주었으며, 지역 태도나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도 일관된 연관성을 나타냈다. 이와는 반대로 권력 가치는 대북 태도, 지역 태도 및 성역할 태도에 대해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또한 이전에 비해 북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감소되었으나 감정이나 일상 생활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의사에 있어서는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 가치가 감정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과 신념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였으며, 또한 가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가치, 대북 태도, 감정, 신념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와 북한 사람들 및 북한 정책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Katz(1960)는 사람들이 어떠한 대상 혹은 집단에 대해 태도를 가지는 것은 태도가 네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태도가 지식 기능(즉, 대상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돕는 기능), 가치 표현 기능(즉,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확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기능), 자아방어 기능(자신에 대한 위협적이거나 바람

직하지 못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기능) 및 실용적 기능(즉, 보상을 극대화하고 처벌을 최소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다 최근의 연구자들(Gastil, 1992; Herek, 1988; Shavitt, 1989)은 Katz가 제안한 태도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태도의 기능들은 개인적 실용성, 사회적 실용성, 가치표현, 사회적 적응(즉,

*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도와 주신 호서대 홍기원 교수님과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교신저자: 김혜숙, (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전동 산 5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전화: 031) 219-2770. E-mail: hsk@madang.ajou.ac.kr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 사회 정체(즉, 집단
에의 소속감을 가지는 것), 자아존중 유지 동기 등이다.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도 여러 동기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 Fiske(1998)는 최근 들어, 집단이나 개인
에 대한 사회정보 처리 과정에 사람들이 가지는 동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과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편견적으로 되도록 하거나 혹은 보다 객관적으로
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주요 동기들로
정확한 이해의 동기, 소속의 동기, 통제외의 동기, 자기높
이기 동기 그리고 신뢰의 동기들을 들고 있다. 또한, 미
국의 인종 편견에 관한 이론들은 소수 인종에 대한 편
견이나 양가감정적 태도는 백인들이 가지는 개인주의적
가치(즉, 자립주의, 근면주의 혹은 형평에 대한 가치)와
인종 평등주의적 가치가 상충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Gaertner & Dovidio, 1986; Katz & Hass, 1988). 또
한, Mackie, Devos 및 Smith(2000)는 사람들이 자신과
상반되는 가치(즉, 자유주의적 혹은 보수주의적)를 가지
는 사람들을 외집단으로 규정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과의 이러한 갈등이 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분
노 혹은 두려움)을 유발시켜 서로 대치하거나 혹은 회
피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편견적 태도에 직접 개입되어 있는 가치이
외에도, 사람들이 세상이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
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들이 그들이 어떠한 대상
이나 사회문제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chwartz(1992)는 Rokeach(1973)의 가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10개의 차원들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자기-지도(self-direction, 즉,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것,
통제와 완성에 대한 가치), 보편주의(일반적 타인들에
대한 배려, 사회정의, 환경, 평등에의 관심) 인정
(benevolence; 가까운 타인에 대한 배려, 도움이 되는,
용서하는, 정직한), 전통(전통에 대한 존중, 독실한), 동
조(복종, 자기 통제), 자극(재미있는 생활, 변화있는 생
활), 쾌락(쾌락, 삶을 즐기기), 성취(야심있는, 성공적인),
권력(사회적 권력, 부, 사회적 인정) 및 안전(국가의 안
전, 은혜에 보답, 소속감, 가족의 안전)이다. Schwartz
(1992)는 또한 이러한 차원들을 상위 두 차원으로 구분
하고 있다. 자기-고양(자극, 쾌락, 성취, 권력, 안전) 대

자기-초월(자기지도, 보편주의, 인정, 전통/동조), 그리고
변화에 개방적인(보편주의, 자기지도, 자극, 쾌락, 성취)
대 보수적(인정, 전통/동조, 안전, 권력). Schwartz
(1992)는 이 가치 척도를 20개국(즉, 호주, 홍콩, 대만,
일본 등)의 사람들에게 실시하여 본 결과, 문화에 상관
없이 비슷한 차원의 가치들이 얻어졌다고 보고하였다.
Maio와 Olson(1995)은 Schwartz(1992)의 가치 척도의
단축판을 실시하여 가치를 측정하여 태동와의 상관을
검토한 결과, 자기초월적 가치와 자선 헌금에 대한 태
도와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해 가지
는 태도에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개입
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이나 북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찬성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동포 혹은 이웃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자비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고, 또는 평등이나 사회정의를 지
향하는 보다 보편주의적 가치에 의해 영향받은 것일 수
있다. 또한, 통일이나 북한 돕기 정책 혹은 북한 사람들
에 대해 다소 소원하거나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데에는
보다 자기 고양적 가치인 개인의 성취나 부나 사회적
권력과 인정 추구의 가치가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북한과의 통합이 개인 혹은 국가의 경
계적·사회적 성취나 권력과 힘의 추구에 방해가 된다
고 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
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 사
람과 북한 정책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어떠한 가치들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북한
관련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가치를 검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람들
로 하여금 북한 사람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떠한 태도
를 취하도록 하는 데에 개입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면, 북한 사람을 돕는 것이나 통일이 그러한 가
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
하는 설득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 교육 또는 학교 교육
에 포함시킬 수 있다(Clary, Snyder, Ridge, Miene &
Haugen, 1994). 실제로, Clary 등(1994)은 사람들이 자
원 봉사 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태도에 개입되어 있는 주요 가치 차
원과 부합되는(matching) 측면을 강조하는 설득 메시지

가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보다 중요하게는 북한 사람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고양시키는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 및 통일 정책에 대해 가지는 감정, 신념 및 태도가 어떠한가를 검토하고 이러한 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김혜숙과 오승섭(1999), 그리고 김혜숙(2000)은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 검토하여, 남한 대학생들의 북한 사람 및 북한 정책에 대한 태도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신념들보다 감정(즉, 긍정적 정서와 불쾌-혐오 감정)에 의해 보다 더 영향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정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얻어 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한번 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이전 조사(즉, 1998, 1999년)와 현재 연구의 조사 시기(즉, 2001년)간에 일어났던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즉,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지어 주목할 만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와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 신념 및 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우리 사회의 다른 중요한 사회 범주인 지역범주와 성범주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요 범주들에 대한 태도가 공통의 가치들에 의해 영향받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검토는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지역, 성 혹은 남북한의 집단 범주에 대한 감정이나 편견적 태도가 공통의 기제(즉, 가치)에 의해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지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방 법

조사 대상자 및 조사 시기

본 조사 연구의 응답자는 아주대, 호서대와 서울대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548명(남자 362명, 여자 186명)

이었다. 이중 아주대학교 학생은 189명(남자 133명, 여자 56명), 호서대 학생 205명(남자 134명, 여자 71명), 그리고 서울대 학생 154명(남자 95명, 여자 59명)이었다. 응답자들의 나이는 18살-29살이었으며, 그 평균은 22살이었다. 설문지 조사는 2001년 5월-8월까지 사이에 시행되었다.

설문지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1) 북한 사람의 특징적 특성에 대한 평가 2)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평가 및 북한 사람과의 결혼 의사에 대한 사회규범 지각 3) 대북 정책들에 대한 평가 4)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 평가 5) Schwartz(1992)의 가치 척도를 Maio와 Olson(1995)이 단축시킨 가치 척도 6) 지역감정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 평가 7) 인구학적 정보들을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응답자들은 강의실에서 집단으로 설문지에 답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응답하였다.

1) 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지각

김혜숙과 오승섭(1999)에서 사용한 24개의 북한인 관련 특성 형용사(즉, 권위주의적이다, 이기·타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부지런하다, 교활하다, 친절하다, 검소하다, 협동 단결력이 강하다, 질서의식이 강하다, 순박하다, 허세가 강하다, 합리적이다, 공격적이다, 지배적이다, 주체성이 강하다, 미개하다, 침략적이다, 실리적이다, 음흉하다, 배타적이다, 개성을 존중한다, 폐쇄적이다, 정이 많다 및 우매하다)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특성 형용사에 대해 얼마나 북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지를 9점 척도(1=전혀 특징이 아니다 9=매우 특징적이다)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2)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사회 규범에 대한 지각

북한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주고 지낼 것인가를 묻는 다섯 개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즉, 결혼, 친척, 이웃 관계, 데이트 및 세주기와 같이 일상 생활의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북한 사람과 얼마나 가깝게 지낼 의사가 있는지를 9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

렇다)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북한 사람들과 친밀히 지내는 것에 대한 사회 규범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였다. 즉,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남한 사람들의 몇 %가 북한 사람과 결혼하는데 찬성할 것이지를 추정하였다.

3) 대북 정책들에 대한 태도

김혜숙과 오승섭 (1999)이 사용한 14개의 북한 혹은 통일 관련 정책들에 응답자들이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9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이들은 “통일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 식량 원조를 하는 것이 좋다”, “대북정책은 지금의 햇볕정책이 좋다”, “정부가 기업의 북한 사업 진출을 허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남한이 조금 못살 수도 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통일을 대비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흡수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남북간의 평화 공존을 지향하여야 한다”,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세금을 조금 더 낼 수 있다”, “이산가족 찾기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었다.

4)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정서

응답자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13개의 감정 형용사들을 사용하여 9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가하였다. 이들은 “불안하다”,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불쌍하다”, “슬프다”, “즐겁다”, “그렵다”, “정이 간다”, “화가 난다”, “불편하다”, “존경할만하다”, “두렵다”, “좋다” 이었다.

5) 가치 척도

Schwartz(1992)의 가치 척도(총 56 문항)를 단축하여 사용한 Maio와 Olson(1995)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은 총 9개의 가치 차원(자기-지도, 자극, 쾌락, 성취, 권력, 안전, 전통/동조, 자비 및 보편주의)을 나타내는 단어들(예를 들어, 성공적인, 독립적인, 자유 등)로서 각 차원마다 2-4개의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들

(총 27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1(거부하는 가치), 0(중요하지 않음), 3(중요함), 6(매우 중요함) 및 7(극히 중요함)의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부록에 이 가치 척도가 제시되어 있다.

6) 지역감정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

지역 감정의 심각성과 지역감정의 원인(영남인의 성격 탓, 호남인의 성격 탓, 혹은 정치인 잘못)을 묻는 문항들 4 문항과 성 역할에 대한 질문 문항(즉, “여성이 결혼 후에도 직장을 가져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집안 일을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두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응답자는 각 질문에 대해 9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7) 인구학적 정보

응답자의 성, 학교 및 나이를 묻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결과 및 논의

여기서는 크게 1) 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신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 및 대북 정책에 관한 태도 2)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지역감정 태도 및 성역할 태도와의 상관 3)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4) 대학생들의 가치가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와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언해 주는 정도 및 지역 태도와 성역할 태도를 예언해 주는 정도 5) 북한 사람에 대한 신념, 감정, 규범 및 사람들이 중시하는 가치가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와 대북 정책 태도를 예언해 주는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1) 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신념,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 및 사회적 거리감, 그리고 대북 정책에 관한 태도

여기서는 북한 사람에 대한 신념, 감정 및 사회적 거리감 그리고 대북 정책 태도에 대해 요인 분석 및 평균을 구하고, 각각에 대해 성 차이, 그리고 나이와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또한 가능한 대로 이전의 자료(김혜숙,

표 1. 북한 사람의 특성 평가 점수에 대한 요인 분석

요인 명	요인 문항	고 유 가	설명변량(%)	평균('99자료) ¹⁾ (표준편차)
배타·폐쇄	배타적, 공격적, 허세, 지배적, 폐쇄적	5.48	22.8	5.51(5.56) (1.47)
협동·단결	협동단결력, 질서의식, 주체성	3.27	13.6	6.64(6.13) (1.58)
침략·미개	미개, 침략적, 음흉, 우매	1.84	7.7	4.28(4.89) (1.58)
권위·이기	권위주의적, 이기적, 타산적, 개인주의, 교활	1.24	5.2	4.20(5.48) (1.54)
순박·정	친절, 검소, 순박, 정이 많다	1.16	4.8	5.57(5.42) (1.28)
실리적·합리적	실리적, 합리적, 개성 존중	1.05	4.4	3.80(4.79) (1.17)

주 1. 김혜숙과 오승섭(1999)의 연구2의 자료로, 아주대 학생 190명의 응답 자료임(1999년 조사).

2. 남녀 응답자 차이: 실리적·합리적 특성, 남(M=3.64) 여(M=3.42), $F(1, 547)=5.84, p<.05$.

오승섭, 1999(1998, 1999년 조사); 김혜숙, 2000(1999년 조사)와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이전의 자료에서는 응답자가 특정 대학의 대학생들이었고 본 연구는 세 대학의 대학생을 응답자로 하였으므로, 두 연구간에 나타나는 차이가 반드시 시간이나 역사적 사건의 차이 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나, 두 연구 모두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대학생들이 응답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먼저, 24개의 특성 형용사를 사용하여 실시한 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분석법과 varimax rotation법)한 결과, 총 6개의 요인이 얻어 졌다. 표1에 얻어진 요인들과 그 평균이 나타나 있다. 표1에는 또한 김혜숙과 오승섭(1999)의 자료도 제시되어 있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특성 형용사에 대한 평정 평균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북한 사람의 특징으로 협동·단결력이 강하다, 순박하고 정이 많은 특성, 그리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특성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이전의 연구(김혜숙, 오승섭, 1999)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의 특징으로 협동단결력이 강한 특징을 제일 높게 지각하고 한편 배타적·폐쇄적이라고 지각하며, 또한 순박하고 정이 많다고 지각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북한 사람이 덜 이기적·타산적이고 덜 침략적이고 덜 미개하다고 지각하

였음을 보여 (비록 또 한편으로는 이전보다 북한 사람이 덜 실리적·합리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덜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남자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북한 사람들을 더 실리적·합리적으로 지각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표 4 참조).

다음,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을 13개의 형용사로 평가한 점수에 대해 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요인 분석, varimax 회전)한 결과, 세 요인이 나타났다. 이는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표2에 나타나 있듯이, 현재 북한 사람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은 김혜숙(2000)의 연구에서처럼 동정적 감정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즐거움과 정의 정서가 나타나며 불안, 불쾌 정서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불안불쾌 정서와 긍정적 점수는 비슷하였으나, 동정 정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사람들의 굶주림과 가뭄 피해를 집중 보도하였던 '99년에 비해 2001년에는 북한의 개방 정책 등을 주로 보도한 언론의 영향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미지에 영향 받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의 변화는 신념의 변화보다는 그 폭이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2000년 자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즐거움·정 등과 같은 긍정적 감정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표 2.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 평가 점수에 대한 요인 분석

요인 명	요인문항	고유가	설명변량(%)	평균('00자료) ¹⁾ (표준편차)
불안·불쾌	불안, 혐오, 불쾌, 분노, 불편, 두려움	4.20	32.3	3.64(3.71) (1.41)
즐거움·정	즐겁다, 그럽다, 정이 간다, 존경할만하다 좋다	2.28	17.6	4.14(3.90) (1.31)
동정	불쌍하다, 슬프다	1.57	12.1	5.25(6.06) (1.81)

주 1. 김혜숙(2000)의 자료로 아주대학교 학생 195명의 응답 자료임 (1999년 조사).

2. 남녀 응답자 차이: 즐거움·정, 남자(M=4.23) 여자(M=3.96), $F(1, 546)=5.25, p<.05$.

나타났음을 보여 주었다(표 4 참조).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5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평균하여 사회적 거리감 점수(Cronbach $\alpha=.85$)로 삼았다. 이 사회적 거리감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의 인간 관계의 중요한 영역-결혼, 친인척, 데이트, 이웃, 세주기 등-에서 북한 사람들과 얼마나 가깝게 지낼 의사가 있는가를 의미한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감 평균은 5.69(제일 멀=1, 제일 가까움=9)이었고, 특히 보다 친밀한 관계(즉, 결혼(M=3.99), 친인척 삼기(M=4.93))를 가지고자 하는 정도가 덜 친밀한 관계(이웃(M=6.17), 데이트(M=6.31), 세주기(M=7.15))를 맺고자 하는 정도보다 더 낮았다. 남성(M=5.96)이 여성(M=5.19)보다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과 친밀히 지내고자 하는 의사가 더 높았으며($F(1, 547)=27.36, p<.01$; 표4 참조), 특히 여성(M=3.07)은 남성(M=4.43)보다 북한 사람과의 결혼을 꺼렸다($F(1, 547)=51.46, p<.01$). 이와 같은 전반적 사회적 거리감 점수, 성 차이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의 세부 영역에 따른 차이는 김혜숙과 오승섭(1999)의 결과와 비슷하였다('99년 조사 사회적 거리감 점수 평균: 5.56).

북한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 남한 사람들의 백분율에 대한 지각(즉, 규범 지각)은 평균이 40.1%로, 실제로 자기 자신이 결혼할 의사에 대한 응답 중 척도의 중간(5점) 이상으로 답변한 사람들의 백분율보다 약간 낮았다(즉, 43.49%). 후자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규범의 백분율 평정에 대해 변량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F(8, 540)=8.94, p<.01$), 자신이 북한 사람과 결혼할 의사가 클수록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다고 지각

하였다. 또한 성차이가 나타나 남자 대학생들(M=44.1)이 여자 대학생들(M=31.7)보다 일반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과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를 더 높게 추정하였다(표 4 참조).

다음, 대북 관련 정책들에 대한 태도를 묻는 14개의 문항에 대한 평가 점수들에 대해 요인 분석한 결과 두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3에 이 두 요인들과 그 평균이 나타나 있다. 먼저, '경제적 지원과 통일준비' 요인에는 '통일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남한이 조금 못 살수도 있다',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낼 수도 있다' 등 11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의 필요성과 통일을 대비한 경제적 희생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태도의 차원이다. 요인 2는 '민간인 교류'에 관한 태도 요인으로 '이산가족 찾기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남북한 사람들의 민간인 교류는 하루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및 '대북 정책은 흡수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지향하여야 한다'의 세 문항을 포함하였다. 표3에서 보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정책이나 통일을 위한 경제적 희생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민간인 교류 증진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찬성하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김혜숙과 오승섭(1999)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제 지원 및 통일 준비 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더 찬성하였다(표 4 참조).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태도는, 표3에 나타나 있는 대로, 99년 자료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요인 명	요인 문항	고유가	설명변량%	평균('99자료) (표준편차)
경제적 지원 및 통일 준비	통일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 식량원조를 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더 낼 수도 있다 등 11문항	6.27	44.8	996.12(6.21) (1.27)
민간 교류	이산가족 찾기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은 흡수통일 보다는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지향하여야 한다 등 3문항	1.11	8.0	7.22(7.00) (1.28)

주. 성 차: 경제적 지원 및 통일 준비 $F(1, 542)=16.64, p<.01$. 남자($M=6.27$), 여자($M=5.80$).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나이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신념, 감정 및 태도와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북한 사람이 덜 폐쇄적이고($r=-.11$), 덜 침략적이며($r=-.08$), 덜 이기적($r=-.09$)이라고 믿었고, 북한 사람들에 대한 불안불쾌 감정($r=-.10$)이 낮았으며, 또한 경제 지원 정책($r=.15$)에 대해 보다 호의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신세대 대학생들의 보수주의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혹은 우리 대학에서의 교육이나 문화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 보다 진보적이어서 대학에 오래 있을수록 대학 문화의 영향을 더 받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보다 호의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학생들은 북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협동 단결력이 강하고 순박하고 정이 많다고 지각하며 한편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지각하였다. 또한 '99년보다 북한 사람들이 덜 이기적·권위주의적이며 덜 침략적이라고 지각하여 이전보다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정적 정서가 가장 높았으나 이러한 감정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아졌다.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그다지 높지 못하였으며 특히 결혼할 의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통일 준비 정책이나 민간 교류 정책에 대한 태도도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온건한 정도로 우호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에 있었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나 일련의 이산가족 상봉 등의 사건들이 북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신념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감정이나 일상 생활에서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 혹은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에는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

표 4. 신념, 감정, 태도 및 중요 가치에 있어서의 성차이

	남자	여자	p<
배타적	5.50(1.43)	5.47(1.54)	n.s.
협동단결력	6.63(1.59)	6.65(1.58)	n.s.
침략·미개	4.20(1.54)	4.45(1.62)	n.s.
권위·이기적	4.14(1.51)	4.24(1.59)	n.s.
순박·정	5.57(1.29)	5.60(1.26)	n.s.
합리적·실리적	3.64(1.20)	3.42(1.12)	.05
불안·불쾌	3.60(1.38)	3.72(1.45)	n.s.
즐거움·정	4.23(1.30)	3.96(1.32)	.05
동정	5.23(1.87)	5.32(1.68)	n.s.
경제지원	6.27(1.22)	5.80(1.31)	.01
민간교류	7.21(1.30)	5.22(1.22)	n.s.
사회적 거리	5.96(1.62)	5.19(1.67)	.01
규범 지각	44.13(37.51)	31.65(20.10)	.01
보편주의	5.01(1.13)	4.99(1.02)	n.s.
자기도·성취	5.02(1.15)	5.03(1.16)	n.s.
전통	4.65(1.36)	4.55(1.14)	n.s.
쾌락	4.50(1.36)	4.30(1.38)	n.s.
권력	3.61(1.40)	3.83(1.16)	.08
자극	4.52(1.46)	4.57(1.34)	n.s.
종교적 자비	3.47(1.73)	3.40(1.56)	n.s.
지역감정심각·정치인	6.88(1.41)	6.84(1.26)	n.s.
호남 성격	3.48(2.12)	3.54(1.98)	n.s.
영남 성격	3.48(2.09)	3.60(1.96)	n.s.
성역할 평등	6.73(1.59)	8.01(1.21)	.01

주. 남자 N=363, 여자 N=186. ()은 표준편차임.

표 5. 북한 관련 태도, 지역 감정 태도 및 성역할 태도간의 상관

	사회적 거리감	경제지원 정책	민간교류 정책	지역감정 ¹ 심각·정치인	호남성격	영남성격	성역할 ² 평등
사회적 거리	1.0	.53**	.37**	.01	-.17**	-.15**	-.06
경제지원 정책		1.0	.61**	.04	-.19**	-.15**	.02
민간교류 정책			1.0	.16**	-.09*	-.05	.11**
지역감정 심각·정치인				1.0	.10*	.10*	.19**
호남성격					1.0	.82**	-.04
영남성격						1.0	-.05
성역할 평등							1.0

주 1. 지역감정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의 평균 점수.

2. 성역할 태도를 묻는 두 문항의 응답 점수 평균임.

* $p < .05$, ** $p < .01$.

성역할 태도의 성 차이, $F(1, 542) = 92.35$, $p < .01$. 남자($M = 6.73$), 여자($M = 8.01$).

2) 북한 사람과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지역감정 태도 및 성역할 태도와와의 상관

북한 관련 태도와 남한의 지역 감정에 대한 태도 혹은 성역할에 대한 태도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즉,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주인 지역범주와 성범주에 대한 편견적 태도 혹은 보수적 태도가 서로 관련되고 또한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추론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는 지역감정에 대한 태도 및 성역할 태도와 낮지만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작을수록(즉, 북한사람에 대해 친밀한 태도를 가질수록) 지역감정을 영남인의 성격($r = -.15$)이나 호남인의 성격 탓($r = -.17$)으로 덜 지각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및 통일 준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지역감정의 원인을 영남인의 성격($r = -.15$)이나 호남인의 성격($r = -.19$) 탓으로 덜 지각하였다. 한편, 북한과의 민간교류에 찬성할수록 지역감정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고 지각하며($r = .16$), 지역감정의 원인이 정치인들에 있지 호남인의 성격 탓이 아니라고 평가하며($r = -.09$), 동시에 성역할 평등을 지지하였다($r = .11$). 즉, 사회적 거리감과 경제 지원 및 통일 준비 정책에 대한 태도가 지역감정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상관되는 형태가 유사하고, 민간 교류정책에 대한 태도가 지역감정과 성역할 태도와 가지는 상관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밝혀진 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 거리감이나 경제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더 보수적 태도를 취하나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는 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감, 경제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평등에 대한 태도와와의 상관이 약화되어 나타난 데에 일부 기인될 수 있다.

3) 대학생들이 가지는 가치

총 27개의 가치 관련 단어들에 대한 평정 점수를 요인 분석한 결과, 7개의 가치 요인을 포함시켰다. 이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6에서 보면, Schwartz(1992)의 원래 척도와 Maio와 Olson(1995)의 단축 척도에서와 달리 안전가치나 성취가치가 따로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이 안전 가치로 분류하였던 '소속감'이 보편주의 문항들과 같이 묶였고 원래의 척도에서 인정의 가치로 분류되었던 '정직함'이나 '도움이 되는데'와 같은 항목도 보편주의 문항들과 같이 분류되었다. 7번째 가치 요인은 고유가가 1보다 낮았으나 원래 척도의 가치 항목들을 되도록 포함시키기 위해 7번째 가치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 대학생들은 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인 자유, 독립의 가치 및 성취의 가치를 중요

표 6.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

가치 명	요인 문항	고유가	설명 변량(%)	평균(표준편차)
보편주의	평등, 소속감, 사회정의, 마음넓은, 환경보호, 정직한, 도움이 되는	7.26	27	5.00 (1.09)
자기지도·성취	자유, 독립적, 야망있는, 성공적	2.67	10	5.02 (1.15)
전통	전통존중, 은혜보답, 자기통제	1.52	6	4.62 (1.29)
쾌락	쾌락, 재미있는 생활, 삶을 즐기	1.38	5	4.46 (1.37)
권력	사회적 권력, 권위, 사회적 인정	1.18	4	3.69 (1.33)
자극	변화있는 생활, 대담한	1.05	4	4.54 (1.42)
종교적 자비	독실한, 용서하는	.94	3	3.45 (1.67)

1. 문항중 '국가안보'와 '창의성'이 여러 요인에 부하되거나 그 의미가 맞지 않는 요인에 부하되어 제외시킴.
2. 평균 점수는 0(중요하지 않음), 3(중요함), 6(매우 중요함), 7(극히 중요함)임.
3. 성차이: 권력 (남자 3.61, 여자 3.83), $F(1, 546)=3.25, p<.08$.
4. 나이와의 상관: 자기지도 및 성취 $r=.10, p<.05$; 권력 $r=-.10, p<.05$.

하게 생각했고 아울러 평등, 사회정의 등의 보편주의적 가치도 비슷한 정도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전통존중의 가치와 보다 자기중심적인 가치인 쾌락과 자극을 중요시하였으며, 권력의 가치와 종교적 자비의 가치를 제일 낮게 평가하였다. 이에서 보면, 나온영과 차재호(1999)가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우리 대학생들은 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 성차이는 권력 가치에 대해 유의미도에 근접하는 차이가 나타났는데($F(1, 546)=3.25, p<.08$), 여성($M=3.83$)이 남성($M=3.61$)보다 이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표 4참조). 각 가치 점수와 나이와의 상관 관계를 구해본 결과, 자기지도 및 성취 가치가 나이와 낮지만 유의미한 상관($r=.10, p<.05$)을 보였고, 또한 권력 가치가 유의미한 부적 관계($r=-.10, p<.05$)를 보였다.

4) 가치가 대북 태도, 지역감정 태도 및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이 가지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가치 차원 점수를 예언 변인으로 하고 북한 사람 및 정책에 대한 태도를 각 기준 변인으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회귀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표7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이 가지는 보편주의적 가치가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와 대북 정책에 관한 태도에 대한 가장 강한 유의미한 예언 변인(사회적 거리감 $\beta=.18$; 경제지원 정책 $\beta=.17$; 민간교류 정책 $\beta=.25$)이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편주의의 가치는 지역감정 태도($\beta=.26$) 및 성역할 태도($\beta=.15$)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와 비슷하게 잘 예언 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편주의적 가치를 중요시 할수록 북한 사람과 경제 지원 및 통일 자원 준비 정책에 대해 호의적이며, 아울러 지역감정의 심각성 및 정치인들의 영향에 대해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성역할에 대해 보다 평등지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편주의 가치에 못지 않게 유의미한 예언을 하고 있는 가치 요인은 권력지향 가치로, 권력지향성이 높을수록 경제 지원이나 통일 자원 준비($\beta=-.10$) 및 민간인 교류($\beta=-.16$)에 대해 부정적이며,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고($\beta=-.14$), 한편 지역감정의 원인을 영호남 사람들의 성격때문(영남성격 $\beta=.12$; 호남성격 $\beta=.13$)이라고 지각하며, 또한 평등적 성역할에 대해 부정적 태도($\beta=-.11$)를 보이고 있다. 즉, 권력 가치는 보편주의 가치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해, 보다 보수적인 대북 태도, 지역감정 태도 및 성역할 태도와 연관되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자비 가치(즉, 독실한, 용서하는)는 경제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beta=-.14$)와 지역감정이 심각한 정도이며 정치인의 잘못 탓이라는 지각($\beta=-.14$)에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다지 명확한 설명이 제시될 수 없으나, 아마도 '용서하고' '독실한' 정신을 지향하는 것은 사회정의나 평등을 중시하는 보편주의의 정신과는 반대로, 사회의 갈등이나 어느 집단의 잘못이라는 단죄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과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7. 북한 태도, 지역감정 태도 및 성역할 태도에 대해 가치가 예언해 주는 정도에 대한 회귀 분석 (β)

기준변인 예언변인	사회적 거리	경제지원 정책	민간교류 정책	지역감정 심각·정치인	호남성격	영남성격	성역할 평등
보편주의	.18**	.17**	.25**	.26**	-.09	-.08	.15**
자기지도·성취	-.11	-.02	.01	.10	.09	.07	.17**
전통	.07	.02	.07	-.01	.08	.07	-.04
쾌락	.03	.03	.00	.06	-.02	.05	-.05
권력	-.14**	-.10*	-.16**	-.01	.13**	.12*	-.11*
자극	.02	.04	.04	-.09	-.05	-.07	.08
종교적 자비	-.03	-.14**	-.03	-.14**	.05	.02	-.08
R^2	.06	.06	.06	.06	.04	.03	.07

주. * $p < .05$, ** $p < .01$

5) 북한 사람에 대한 특성 지각, 감정, 규범 및 중요 가치가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대북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와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가 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신념, 감정, 규범 및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의해 예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나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특히 불안·불쾌의 부정적 감정과 즐거움·정의 긍정적 감정)에 의해 가장 잘 예언되었다. 그 외에 북한 사람에 대한 특성에 대한 신념(특히, '협동적이다'와 '미개·침략적이다'), 다른 남한 사람들 중 북한 사람들과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의 백분율 지각(규범 지각), 그리고 보편주의 가치, 종교적 자비 가치 및 쾌락 가치 등이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해 주었다.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특히 권력 가치)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예언해 주는 정도가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과 신념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는 훨씬 약해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치는 북한 사람들과 직접 관계되는 특정 동기(예를 들어, 동포 사랑 등)나 가치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치였던 데 반해, 신념과 감정은 북한 사람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후자가 전자보다 북한에 대한 태도와 더 강하게 상관되었다는 해석이다. 둘째,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사람들이 중시하는 가치가

표 8. 대북 정책 태도와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신념, 감정, 규범 및 중요 가치가 예언해 주는 정도에 대한 회귀 분석(β)

예언변인	기준변인 사회적 거리감	경제지원 및 통일 준비정책	민간교 류정책
<u>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신념</u>			
배타적	.08	.00	.02
협동단결력	.01	.13**	.14**
침략·미개	-.16**	-.15**	-.07
권위·이기적	-.05	-.05	-.01
순박·정	.01	.05	-.01
합리적·실리적	.01	.04	.02
<u>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u>			
불안·불쾌	-.26**	-.24**	-.29**
즐거움·정	.25**	.29**	.17**
동정	.05	.13**	.10*
<u>규범 지각</u>			
	.38**	.14**	.05
<u>가치</u>			
보편주의	.06	.03	.14**
자기지도·성취	-.04	.04	.05
전통	-.04	.00	-.03
쾌락	.08*	.00	.05
권력	-.06	-.00	-.02
자극	.03	.00	.03
종교적 자비	-.02	.00	-.11*
R^2	.42	.25	.54

주.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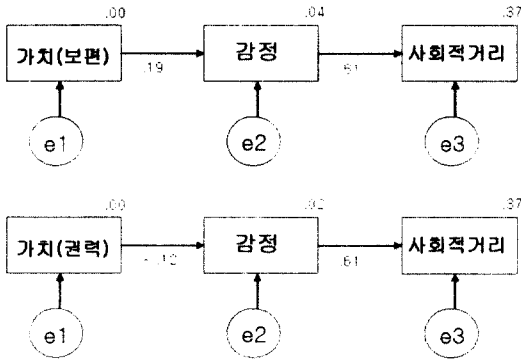


그림 1. 가치(보편주의, 권력)가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과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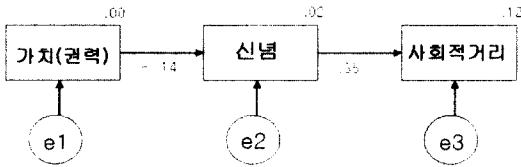


그림 2. 가치(권력)가 북한 사람에 대한 신념과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매개 변인이 다시 직접적으로 북한 사람이나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검토해 보기 위해 보편주의 가치 혹은 권력 가치가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긍정적 감정-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 다시 북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을 검토해 보았다. 그림1에 이 모형들과 경로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1에 제시된 두 모형 모두 모형부합도가 좋았다(위 모형(보편주의 가치):

$\chi^2(1)=3.34, p>.05, GFI=.99, NFI=.98, NNFI=.97, RMSEA=.06$; 아래 모형(권력 가치): $\chi^2(1)=1.59, p>.05, GFI=.99, NFI=.99, NNFI=.99, RMSEA=.03$). 다음,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매개 변인을 신념(협동단결력 평가 - 침략 - 미개 평가)으로 한 경로 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권력 가치의 경우에 대해서만 모형부합도가 좋았다(권력가치: $\chi^2(1)=2.90, p>.05, GFI=.99, NFI=.97, NNFI=.93, RMSEA=.06$; 보편주의 가치: $\chi^2(1)=12.52,$

$p<.01, GFI=.99, NFI=.86, NNFI=.59, RMSEA=.15$).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주의 가치나 권력 가치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지는 권력 가치 지향이 북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북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의사가 영향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 특히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와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 보편주의 가치는 대북 태도에 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권력 가치는 부적 방향으로 영향 미쳤다.

2) 가치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과정에 대한 검토는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감정과 신념이 다시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3)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는, 지역감정에 대한 태도나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도 대북 태도에 대해서와 비슷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4)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신념, 감정 및 사회적 거리감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는 '99 자료와 비교할 때 여전히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전에 비해 북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는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는 변화는 있었으나 북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의도나 감정,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성보다 덜 긍정적인 대북 감정, 신념 및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신념보다 대북 태도에 더 강한 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정의나 평등을 지향하는 보편주의(Schwartz는 보

편주의 가치를 자기초월적이면서 변화에 개방적인 가치로 분류하였음) 가치가 북한 사람과 친북 정책에 대한 보다 호의적 태도뿐만 아니라 지역 감정 태도나 성역할 태도 등 사회의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태도와 공통적으로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등과 사회정의 및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소수 집단이나 약자들에 대해 일관되게 보다 개방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한편, 보편주의 가치와는 반대로 권력 지향(Schwartz의 분류에 의하면, 이 가치는 자기고양적이며 변화에 보수적인 가치임)의 가치는 보다 보수적인 대북 태도, 지역 감정 태도 및 성역할 태도와 연관되었다. 이러한 후자의 결과는 Adorno, Frenkel-Brunswik, Levinson 및 Sanford(1950)의 Frankfurt 학파에서 주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민경환(1989)이 보여준, 권위주의적 성격의 사람이 덜 권위주의적 성격의 사람보다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즉, 호남인, 여성 및 하층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 더 부정적 고정관념과 감정과 사회적 관계 의사를 가진다는 결과와 일관된다. 즉, 성격에 의해서이건 가치에 의해서이건, 권력과 힘을 중시하는 가치나 지향성이 일반적으로 북한, 여성 및 지역 집단 등 사회의 소수 집단이나 약자들에 대한 보다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태도와 관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나이가 어린 대학생들에서 권력 지향적인 가치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북한 사람들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나 지역감정 태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이 그다지 진취적이거나 진보적인 가치와 태도를 고취시키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약간 더 권력 지향 가치가 높고 북한에 대한 태도가 보다 보수적이었으며, 그러나 한편 성역할 평등에 대한 지지는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지역감정에 대해서는 남자 대학생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세대 여대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의 소수 집단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여자 대학생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자신

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과 소수로서의 경험이 다른 소수 집단이나 약자들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까지 일반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나이에 따른 차이나 성 차이가 일반인들에서도 나타나는 지를 앞으로의 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보편주의 가치나 권력 가치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과정에 대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있다. 즉, 그러한 가치가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감정과 신념이 다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 가치에 의한 내외집단 확인이 가치가 상충하는 외집단에 대한 분노, 경멸 혹은 두려움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감정이 다시 외집단에 대한 투쟁 혹은 회피의 행동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Mackie 등(2000)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물론 본 연구는 Mackie 등(2000)의 연구에서처럼 가치가 상충하는 집단에 대한 감정과 행동의사를 검토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가진 가치의 구현(예를 들어, 사회적 권력 획득)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방해가 되는 집단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Mackie 등(2000)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편 두 연구 모두 가치의 갈등과 방해가 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지 못했지만, 보편주의 가치나 권력 가치가 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기제는 내외집단 범주화(Tajfel & Turner, 1989)의 강도 혹은 내집단 범위의 폭이다. 즉, 보편주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집단만을 내집단으로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외집단으로 범주화시켜 구분하는 경향성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이러한 범주화를 사용하는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보다는 보편주의 가치 지향은 '민족'이나 '인류' 전체라는 보다 포괄적인 상위 범주에 대한 관심과 연관될 수 있다. 반면, 권력 가치 지향은 자신과 직접 연관된 하위 범주(예를 들어, 지역)에 의한 내외집단 범주화의 인식과 적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권력 가치가 높은 사람은

북한 사람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여 보다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었을 수 있는 반면, 보편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을 같은 민족 혹은 인류로 분류하여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검토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과 고정관념이 모두 대북 태도를 예언해 주었지만, 이 중 감정이 대북 태도를 보다 잘 예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혜숙(2000)의 결과를 반복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김혜숙(2001)의 연구에서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성 집단에 대한 신념보다는 호감도에 의해 보다 잘 예언되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한편, 김혜숙(2001)은 지역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지역 집단에 대한 신념이 호감도보다 더 잘 예언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보편주의 가치와 권력 가치가 대북 태도뿐 아니라 지역감정 태도와 성역할 태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가치가 지역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과정은 대북 태도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가치가 지역인들에 대한 감정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중 신념이 지역인들에 대한 태도나 행동의사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성집단에 대한 신념과 감정에 가치가 영향을 미치고 이중 감정이 성역할 태도 혹은 성집단에 대한 태도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인들이나 성집단에 대한 감정과 신념을 측정하지 않아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북한, 성 및 지역 집단에 대한 감정, 신념 및 태도를 각각 측정하여 가치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범주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대한 사회규범(예를 들어, 성역할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보편적인지에 대한 지각)의 지각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Mackie & Smith, 1998).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이 북한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다고 지각하는지(즉, 사회규범 지각)와 상관이 있었다.

남한 대학생들의 북한 사람과 대북 정책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남북정상회담이나 이산 가족 상봉이 일어난

후에도 그 이전에 비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비해 북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신념에는 다소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즉,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태도는 북한 사람의 특징에 대한 신념보다 더 더디게 변화할 수 있다. 어떠한 집단에 대한 편견적 감정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의식적, 무의식적(즉, 고전적 조건 형성 등의) 과정에 의해 형성되어 그 수정과 변화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 사람들이 진정한 심리적 통합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어린이들에게 고취시키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적 노력과 이를 위한 교육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어린이들에게 보편주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권력 가치를 지양하도록 하는 가치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고취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대학생들 중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권력 지향 가치가 높으며 북한에 대해 보수적이고 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어릴 적부터의 가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준다. 이와 아울러, 보편주의 가치가 보다 중시되며 가용화 되도록 하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나 문화 규범의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Katz & Hass, 1988).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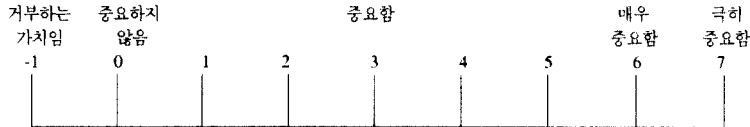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15-134.
- 김혜숙 (2001). 집단 범주에 대한 신념과 호감도가 편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성편견, 인종편견과 한국의 성편견, 지역편견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5(1), 1-16.
- 김혜숙, 오승섭 (1999).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의 비교. 심리과학, 8(1), 1-22.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

- 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3(2), 37-60.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 Adorno, T.,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Clary, E. G., Snyder, M., Ridge, R. D., Miene, P. K., & Haugen, J. A. (1994). Matching messages to motives in persuasion: A functional approach to promoting volunteeris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3), 1129-1149.
- Fiske, S. T. (1998). Stereotyp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2, pp. 357-411). New York: McGraw-Hill.
- Gaertner, S. L., & Dovidio, J. F.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and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 61-8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Gastil, J. (1992). Why we believe in democracy: Testing theories of attitude functions and democrac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6), 423-450.
- Herek, G. M. (1987). Can functions be measured? A new perspective on the functional approach to attitud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85-303.
- Katz, I. (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 163-204.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Mackie, D. M., Devos, T., & Smith, E. R. (2000).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02-616.
- Mackie, D. M., & Smith, E. R. (1998). Intergroup relations: Insights from a theoretically integrative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105*, 499-529.
- Maio, G. R., & Olson, J. M. (1995). Relations between values,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he moderating role of attitude fun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266-285.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havitt, S. (1989). Operationalizing functional theories of attitudes.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pp. 311-33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33-48). Pacific Grove, CA: Brooks/Cole.

부 록

가치척도

당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또 어떤 가치는 당신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의 척도를 사용하십시오. 즉 -1은 당신이 거부하는 가치일 때 적으십시오 0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가치를 의미하고 7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1. _____ 평등 (모두에게 기회가 동등함)
2. _____ 사회적 권력 (타인에 대한 통제, 지배)
3. _____ 쾌락 (욕망의 충족)
4. _____ 자유 (행동과 사고의 자유)
5. _____ 소속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려한다는 느낌)
6. _____ 재미있는 생활 (자극적인 경험)
7. _____ 국가의 안보 (우리나라를 적으로부터 보호)
8. _____ 은혜에 보답하기 (남에게 빚지지 않기)
9. _____ 창의성 (독특함, 상상력)
10. _____ 전통에 대한 존중 (전통적인 관습을 보존하기)
11. _____ 자기 통제 (자제, 유혹에 저항)
12. _____ 사회적 안정 (존경,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13. _____ 변화있는 생활 (도전적인 생활, 새로운, 변화)
14. _____ 권위 (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
15. _____ 사회 정의 (불의를 바로잡음, 약자를 보살핌)
16. _____ 독립적인 (자기의존적, 자족적)
17. _____ 야망있는 (열심히 일하는, 갈망하는)
18. _____ 마음이 넓은 (나와는 다른 사상이나 신념에 대해 관대함)
19. _____ 대담함 (모험적인 일을 추구함)
20. _____ 환경보호 (자연을 보존하기)
21. _____ 영향력있는 (타인이나 중요한 일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는)
22. _____ 정직한 (거짓없는, 진실한)
23. _____ 도움이 되는 (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24. _____ 삶을 즐기기 (먹거리나 성생활, 레저 생활등을 즐기기)
25. _____ 독실한 (종교적 신념과 믿음을 지키기)
26. _____ 용서하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27. _____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A Surve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s and th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s

Hai-Sook Kim

Ajou University

This survey research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s to which people attached importance and th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s and the policies related to North Korea, as well as the attitudes toward regional conflicts and sex-role conflicts. The present research also examined whether there was any change in the beliefs and emotions regarding North Koreans as well as the behavioral intentions (or attitudes) to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ns after the historic summit meeting and the series of meetings of separated families. 552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urvey.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value of universalism (i. e., social justice, equality, etc.) predicted positive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ns as well as more liberal attitudes toward regional conflicts and sex-role. On the contrary, the value of power predicted more reluctant attitudes to hav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ns in everyday life, as well as more conservative attitudes toward regional conflicts and sex-role. The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the emotions and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s shown in the present survey did not differ much from those obtained from the survey in 1999, while the beliefs of North Koreans changed somewhat in the positive direction. A path model postulating that values affected the emotions and beliefs towards North Koreans, and the emotions and beliefs in turn affected attitudes was proposed. The present research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value education to make people take more liberal attitudes toward minority groups.

Keywords: values, attitudes, beliefs, emotion, North Koreans

원고 접수: 2002년 1월 10일
심사 통과: 2002년 2월 1일